

동반성장을 향한 중소기업인 초청 오찬

시장원리를 존중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

언론이나 입소문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두 가지를 분석해 보면 항상 중소기업 쪽에 불리한 것들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니 어렵다는 얘기는 항상 중소기업에 모여 있고, 어떤 것이 잘못됐으니까 고치자 하는 영양가 있는 정책에 관한 이야기는 대기업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속 없이 동정이나 편들어주기 같은 것은 잔뜩 써 놓고도 실속 있는 정책으로 가면 별로 전달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론이나 누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의 요구를 정책으로 잘 다듬어서 밀고 나가기에는 중소기업이 불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소를 가지려고 해도 연구역량이 부족하고, 언론과의 관계를 위한 광고도 어려운 것이 중소기업의 형편입니다. 게다가 정부 공무원 만날 기회도 적고 애로도 많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어려움은 중소기업 내부에서도 입장들이 너무 다르고, 하나하나 정책의 가지 수도 너무 많고 서로 상충되는 것도 많아 구조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강의 구조를 보고 중소기업 정책을 해 봤더니 중소기업들을 전혀 모르고 상관없는 정책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과연 실제로 그런지 논리적으로 검증해 보니 이상한 것이 있고 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2003년 한해를 보냈습니다.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을 조사 분석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만 개 기업을 전수조사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으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알 수도 다 정리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성의껏 노력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것만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 기업환경이 바뀐 만큼 중소기업정책도 바꾸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큰 틀은 짜여 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틀의 방향도 힘없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잘 뛰는 기업에게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그 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오히려 기회를 빼앗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능한 시장원리를 존중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특성상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것이어서 조금만 밀어주면 되겠다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아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잡아놓고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 방향의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의 효과, 시간 걸리더라도 해 나가겠다.

정책을 만들었다고 금방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에너지위원회와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위원회를 했는데, 보고서를 어제 저녁에 받아서 60페이지짜리를 다 읽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을 만큼 정책을 잘 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토론을 해 보니까 위원들도 지적이 별로 없을 만큼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효과가 나타나고 물었더니 10년 뒤에 난다고 합니다.(일동 웃음) 좋다 말았습니다.(웃음) 효과가 제대로 나는 데 10년 걸린다는 거지요. 그래도 해야지 어찌겠습니까?

중소기업 정책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3년, 5년 전체적으로 환경이 좋아지는데 한 10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를 항상 열어놓고 여러분 말씀을 소중하게 듣겠습니다. 먼저 전해 들었던 말이라도 사정이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또 듣고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하도록 제가 꼭 당부하겠습니다. 듣고 또 듣고, 살펴보고 더 살펴보면서 계속 고쳐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큰 틀로서는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세세하게 말씀 안 드리더라도 잘 하겠습니다. 정보제공에 있어서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격차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1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환경을 중소기업에게 유리하도록 만들고, 직접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고 앞장서서 끌어드릴 것은 끌어드리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저희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성공은 국민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자유정책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정책을 내놓았을 때 전 국민이 그것은 안 된다고 치부해 버리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법도 국민의 10% 만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하면 불가능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는 신뢰할 때 따르게 되면서 성과가 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고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국가정책이니까 우리가 협력해서 이뤄보자는 마음을 가지면 어려울 듯한 제도도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도 전 국민이 맞서보자고 버티면 그것이 시행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법이나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강행할 수 있다면 5공이 왜 권력을 놓았겠습니까? 1차적으로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국가정책입니다.

일례가 지금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오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강남 사람들에게 무슨 유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거품 파괴현상을 이겨내고 편안했던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부동산 거품 들어가 꺼질 때 그 경제가 위기나 장기침체에 빠지거나 심각한 몸살을 앓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토지,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는데, 몇 개 지역의 투기 행태로 인해 전국 부동산을 춤추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일을 정부가 가만히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내 놓았는데,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일부 언론까지 거기에 합세하니 국민들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종부세 한번 내 보시면 알게 됩니다. 저도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퇴임 후에 어떤 집에 살까를 들여다보면서 종부세 계산합니다.

일부 언론들하고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은 이 정책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금제도는 노무현 정권이 끝나도 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데 이것을 뒤집는 법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의 성패가 결정되고, 정책의 계속 발전 가능성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의 계획 세워서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 한번 어려워지면 2단계는 나가지도 못하고 그 정책은 실패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인 여러분들께서 우리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은 일단 추진한다는 생각으로 수용해 주시고, 그 후 고칠 일이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대안들을 내는 노력들을 해 주시면 중소기업정책이 다른 정책에 우선해서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 환경이 어려울 때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삶이든 기업이든 잘 되고 못되는 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이 주신 재능과 기회, 둘은 국가와 사회의 제도와 환경, 셋은 나의 노력,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중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시장 환경을 조금 거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모두는 다 할 수 없다는 한계도 인정해 주셔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3등분을 해서 한 부분은 내 탓으로, 그 다음 하늘 쳐다보고 한 번 욕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게는 세 번 만에 한 번씩만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정부의 탓으로 돌리시면 너무 어렵습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 10년을 내다보고 뛰겠다.

사회의 제도와 문화가 바뀌는 것은 장고한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87년 6월 항쟁하고 민선 대통령 뽑을 때는 그날로 천지개벽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15년 지내도록 많이 바뀌었지만, 바뀌는 과정이 그렇게 길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지위가 이제 좀

높아졌습니까? 충분히 높아졌습니까? (네)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만 예를 들었지만 87년 민선대통령을 뽑고 지금까지 17년, 18년의 우여곡절을 다 거친 후, 정말 힘없는 대통령을 이번에 뽑아가지고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힘없는 대통령 뽑아놓으니까 이제서야 국민들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일동 박수) (웃음) 감사합니다.

바뀌기 위해서는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열심히 하면서도 10년을 내다보고 뛰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환경이 정말 제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